

인간은 기억과 분리될 수 있을까?

광주일보 신춘 출신 박이수 작가
장편소설 '시작된 일' 발간
한 공간 둘러싼 세 인물 기억 그려
"소설은 기억을 다스리는 작업"



박이수 작가

"5년째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다소 있어요. 인젠가는 이들이 소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구나, 사람들은 천차만별이구나, 둘 중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어느 게 맞는지 가끔 깊이 생각해 보지만 답을 내기는 어렵네요."

다른 작업 없이 온전히 소설 쓰는 일에 몰두하는 이를 일컬어 전업작가라 한다. 글을 쓰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이들의 고통을 감히 상상하기는 어렵다. '승고하다'고 말하기도 벅하다.

작가는 누구나 마음 한 켠에 전업작가에 대한 로망, 아니 열망이 있다. 생계를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글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러나 대부분은 현실에 얽매어 있기 마련이다.

직장일을 하면서 작품을 쓰는 주경야작(晝耕夜作)이 일반적인 건 그 때문이다. 박이수 작가가 마찬가지다. 그는 '북스테이'를 운영하는 한 편의 소설을 쓴다. 몇 해 전 북스테이를 운영하기 위해 나주 남평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두 번 다시 집 짓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어찌나 힘들든지 이걸 줄 알았다면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던 그의 말을 들은 자가 바로 었그제인 듯 했다.

그로부터 5년 여가 흘렀다. 얼마 전 박 작가가 장편 소설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어느 작가가 전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2014)에 '컨테이너'가 당선돼 등단하면서 문단에 나온 박 작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창작세계를 열어가는 소

설가다. 이번에 펴낸 장편 '시작된 일' (겉은 사람)은 한 공간을 둘러싼 세 인물의 기억에 관한 작품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눈과 관점으로 특정 공간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의 기억은 윤색이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세 인물에게 각각 다른 색깔과 형질로 남아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기억과 온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어떤 인물에 대한 기억 또는 특정 공간이 심어준 기억 등요. 그러한 기억들이 결국엔 '꿈'으로 안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작가는 이번 작품을 오래 전 집 근처 실내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왔다고 했다. 자신과 동갑내기였던 그녀가 체념적인 투로 한 말들은 고스란히 소설의 '재료'가 됐다. "그녀 이야기는 대부분 지난 과거였는데, 스럽없이 쏟아내는 독백형 말투가 내면을 흔들었고,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단면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소설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흔히 말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기억과 꿈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은 창작은 고통스럽다는 다른 의미로 들려왔다. 작가에게 쓰고 있을 때보다 안 쓰고 있을 때 더 힘든 경우가 바로 그런 시간일 터다.

소설에는 지실, 혜영, 이정선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늙어감'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숙명에 맞서야 한다. 유년 시절 함께 '등대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지실은 소설가를 지망했으며 정선은 시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혜영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 시란고난한 고통과 우여곡절은 '늙음' 그리고 '좌절'과 맞물리면서 변곡점을 만들어 저마다의 '서사'가 된다.

문종필 평론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삶을 치열하게 견디는 과정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버티는 이야기"인 셈이다.

문 평론가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인물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 역시 이 인물들이 '아웃사이더'라는 점이다. 아웃사이더는 늘 변방에 위치한 존재이지만 갖다들 중앙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며 "인정 욕망에서 벗어나면 정말로 나다운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 작가는 앞으로도 북스테이를 운영하며 소설 쓰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어렵게 집짓기를 마치고 시실을 갖추는 일이 녹록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견뎌왔고, 그 과정을 토대로 현재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세계 소설은 역시 '기억'을 다스리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의 삶은 훗날 또 다른 기억으로 남겠죠. 좋은 소설을 위해서라도 좋은 기억을 엮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다운타운 킹콩'과 음악 여행

카페뮤지엄 CM서 8일 130번째 라이브 콘서트



다운타운 킹콩 멤버 이광배(왼쪽부터), 주하주, 박성언이 공연하는 모습.

<CM 제공>

카페뮤지엄 CM(대표 정은주·CM)에서 130번째 라이브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주인공은 광주에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주하주·이광배·박성언이 결성한 프로젝트팀 '다운타운 킹콩'.

CM이 오는 8일 오후 8시 CM에서 'Friday Live in CM'을 펼친다. 공연에 출연하는 '다운타운 킹콩'은 지난달 광주에서 활동해 온 세 사람이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하자'는 목표로 결성한 3인조 프로젝트 그룹이다.

"팀명에는 '다운타운 문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어요. 도시를 자유롭게 활개치는 킹콩처럼 음악인의 선두에 당당히 서서 '우리만의 음악을 하자'는 포부를 함축했죠."

팀 결성의 이유를 묻자 돌아온 이들의 답이다. 다운타운 킹콩은 40대부터 60대까지 멤버들의 다

양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해서만큼은 청춘의 열정이 가득했다.

이번 공연은 다함께 부르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사노라면' 등은 물론, 개별 곡들로 레퍼토리를 꾸렸다. 지난 2022년 50이 넘는 나이로 첫 앨범 'Comin' Home'을 선보인 뮤지션 이광배는 '달빛 쇼윈도', 'NEWS BIRD' 등 앨범 수록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그리운 남평역' 등 도시에서의 추억을 서정적인 노랫말에 담은 가수 주하주도 출연한다. '남평주에 나는 가리'를 비롯해 '6월' 등 대표곡들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 밖에 가수 박성언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곡 '강리도', '낮춰요' 등을 부른다.

관람료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 '구석구석 문화배달' 국비 10억 확보

문화재단 총 사업비 14억...다음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 진행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지역 문화진흥원 주관 '2024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단은 도·사·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매월 나주 혁신도시 등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기존 유사 사업을 통합해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규사업이다.

공모에 앞서 재단은 문화취약지역과 혁신도시 등 도내 16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을 조사했으며, 전남도·시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업의 세부 주제는 '문화요일', '쉬'요일'이며, '장소의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 숲의 요일' 등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남 문화가 있는 날 협의회'를 구성해 프로그램을 추



지나해 문화가 있는 날 '실버 마이크' 오디오션.

<전남문화재단 제공>

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새롭게 개편한 이번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질 바란다고"며 "앞으로도 재단은 전남의 문화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원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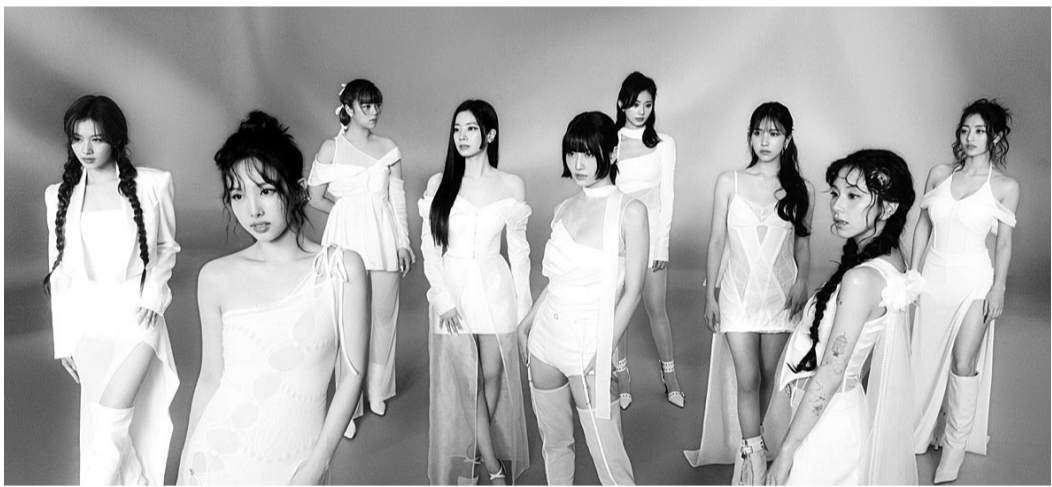
'빌보드 200' 1위 진격의 트와이스

신보 '위드 유-스'로 첫 정상

결그룹 트와이스(사진)가 "꿈만 꾸던 일이 실현돼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소감을 밝혔다.

트와이스는 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전작 '레디 투 비'(READY TO BE)가 '빌보드 200' 2위로 진입했다는 소식도 놀라웠는데, 새 앨범으로 1위에 올랐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빌보드는 전남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트와이스가 열세 번째 미니앨범 '위드 유-스'(With YOU-th)로 모건 윌렌 등 정장현 스타들을 제치고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트와이스는 2020년 아홉 번째 미니앨범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로 '빌보드 200'에 처음으로 진입한 뒤 내놓는 앨범마다 꾸준히 이 차트에 이름을 올려왔다. 이번 신보 '위드 유-스'는 한터차트 기준 발매 첫 주 판매량 106만3615장을 기록해 밀리언셀러에 오르며 자체 최고 기록도 경

실했다. 트와이스는 전 세계 27개 지역에서 49회에 걸친 다섯 번째 월드투어 '레디 투 비'(READY TO BE)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리언트 스타디움과 7월 일본 오사카 안마 스타디움 나가이·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연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리다리)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빌라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 김기범 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